

## 공공공사 3조3,775억원 풀린다

오늘 도내 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상반기에만 2조3천억 조기발주  
지역 건설자재 구매 촉진 방침

올해 도내 공공 건설공사로 3조3,775억원이 발주된다.

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24일 오후 2시 홍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2017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 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와 18개 시·군을 비롯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교육청 등 56개 기관의 올해 발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전체 지자체·공공기관의 올해 공사물량은 건설공사 3,312건 3조2,435억원, 설계용역 734건 1,340억원 등 총 4,046건 3조3,775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772건 2조3,994억원이 풀린다. 공사건수는 전체의 93.2%, 공사금액은 71.0%가 조기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내 각종 공사 발주 시 지역건설자재 구매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매목표 비율은 도·시·군 85% 이상, 유관기관 70% 이상이다. 하위윤기자

## 기계건설協 도회장 후보 공모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도회 10대 도회장 후보 등록 신청이 실시된다.

도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1명 이상의 후보가 신청할 경우 3월8일 후보자 기호 추첨이 이뤄지며 선거는 29일 오전 11시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릴 정기총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하위윤기자

# 강원도 올 공사발주 3조원 넘어

(3조2435억)

월정3거리~차항 도로확포장  
양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총 3312건... 71% 상반기 집중  
도, 오늘 흥천서 추진계획 설명회

올해 강원도에서 3조원 넘는 규모의 공  
공건설 공사가 발주된다.

23일 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에 따르면, 올해 도와 18개 시군.  
원주지방국도관리청 등 56개 발주기관  
은 총 4046건의 건설사업을 발주할 예정  
이다. 금액으로는 3조3775억원 규모다.  
이 중 건설공사가 3312건에 3조2435억원  
이며, 설계용역이 734건에 1340억원이다.  
금액 기준으로 건설공사 비중이 96% 수  
준이다.

발주 기관별로는 시군의 발주량이 1조  
2822억원으로 가장 많다. 도가 2216억  
원을 발주할 계획이어서 도와 시군의 발주  
량은 전체 발주량의 45%인 1조5038억  
에 달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원주  
지방국도관리청이 각각 5091억원과 4797  
억원의 건설공사를 추진한다. 도 교육  
청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도 각각  
3066억원과 1473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발주 시기별로는 1분기에 가장 많은 1  
조3484억원의 발주가 몰려 있다. 2분기에  
도 1조510억원 규모의 공사 입찰이 예정  
돼 있어 상반기에 전체 발주계획의 71%(2  
조3994억원)가 집중된다.

올해 도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2017년 강원도 건설공사 발주 계획 (주요 추진사업 내역)

월정3거리~차항 도로확포장	207억4500만원
반곡-남산 도로확포장	179억5100만원
원주소방서 신축공사	109억9000만원
인제군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557억700만원
인제군 관대-신월 친환경도로 개설공사	250억원
평창-정선3 도로 건설공사	349억4800만원
<b>총 사업비</b>	<b>3조2435억원 (3312건)</b>



지방도456호선 월정3거리~차항 도로 확  
포장공사(207억4500만원)와 국지도70  
호선 반곡-남산 도로 확포장공사(179억  
5100만원), 원주소방서 신축공사(109억  
9000만원) 등이다.

시군 사업 중에는 인제군 덕산-부평 통  
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557억700만원),  
양구군 동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  
사(212억3000만원), 인제군 관대-신월 친  
환경도로 개설공사(250억원), 강릉시 사  
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161억3700만원)  
등이 눈에 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동해항 3  
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공사(2148억  
6900만원)와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2공  
구) 축조공사(1964억7500만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평창~정선3  
도로 건설공사(349억4800만원)의 사업

비규모가 가장 크다.

한국남부발전의 삼척북지관 신축공사  
(185억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  
역본부의 원주태장A-1블록 아파트 건설  
공사(222억원), 강원도개발공사의 삼척  
복합체육공원 건설사업(340억원) 등도  
올해 도내 주요 건설공사로 꼽힌다.

한편 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24일 흥천 서  
컨벤션 웨딩홀에서 '2017년 건설공사 및  
설계 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연다. 도는  
올해 도내 공사 발주에서 지역건설자재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목표 비율을  
도와 시군 발주공사는 85% 이상, 유관기  
관은 70%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업체  
의 자재와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하고 지  
역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준수해 달  
라"고 당부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 건협, 도공 등 공기업 초청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  
부와 산하 4대 공기업을 초청해  
'2017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  
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담보대출 규  
제 강화 등에 따른 민간주택분야  
침체로 건설사들이 수주물량 확  
보를 위해 공공건설시장에서 치열  
한 수주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  
에 따라 건설사들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  
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한국도로  
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  
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사업 발주 규모 및 시기 등을  
해당기관 담당자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건설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  
람은 건설협회(02-3485-8302)로  
문의하면 된다.

## 건협 "미래 성장산업 기반 마련 집중하자"

'한국건설 70주년'을 맞아 올  
해 대한건설협회는 위기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래 성  
장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  
량을 집중한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  
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제59  
회 정기총회(사진)를 열고 2017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을 의결했다.

건협은 올해 사업목표를 '선  
제적 위기대응 및 미래 성장산  
업 기반 조성'으로 정하고, 4대  
추진전략을 △산업구조 혁신  
△공사 수익성 확보 △신건설투  
△창출 △회원 경영지원 강화  
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발주시  
스템 및 생산체계를 선진화하고  
건설기업의 현장경쟁력 강화,  
신수요 발굴 및 민간투자 유인,  
회원 경영지원 확대, 건설산업  
위상제고 및 신뢰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조기 대선에 대비해 '건  
설산업 재도약을 위한 혁신 마

59회 정기총회... 최삼규 회장 '명예회장' 추대



스터플랜'을 마련해 차기 정부  
의 정책과제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칭 '노후 사회기  
반시설 자산관리기본법'을 제  
정해 국민안전을 위한 노후 인  
프라 성능개선을 추진한다. 오  
는 5월30일에는 '건설인 올림  
픽'으로 불리는 제43차 이포카  
(IFAWPCA)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협회는 이날 공석이 된 회원  
이사 1인 보궐 선출과 임기가 끝  
난 윤리위원 16명 선출의 건도  
상정했다. 회원이사와 윤리위원  
은 신임 유주현 협회장에 위임

해 선출하기로 했다.

최삼규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  
서 "회원들의 지원과 헌신 덕  
에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최저가  
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제도 폐  
지, 입찰담합 사면 등 업계의 오  
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  
다"며 "3월부터 새 회장을 중  
심으로 대동단결해 건설업계에  
산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6  
년간 협회 발전에 기여한 최삼  
규 회장을 만장일치로 명예회장  
으로 추대했다. 김태형기자 kth@